

외국인 관광객 자유이용권 '디스커버 서울패스' 인기

서울시가 2016년 외국인 관광객 전용으로 출시한 '디스커버 서울패스(Discover Seoul Pass)'의 누적판매량이 5만장을 돌파했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서울의 인기 관광지 및 대중교통을 카드 한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카드다. 서울시내 36개 관광지 무료 입장, 미용, 한류문화 체험 관광지, 면세점, 중앙대 국제의료센터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티머니 카드 겸용으로 교통카드로도 사

'디스커버 서울패스'를 주로 판매하는 '온라인 여행사(OTA)' 판매 현황을 통해 본 국가별 판매 비중은 2017년의 경우 필리핀(19.3%)이 1위를 차지했다. 말레이시아(15.9%), 홍콩(11.4%), 중국(9%), 싱가포르(7.9%)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가별 판매량은 '대만'이 34.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말레이시아(18.24%) 2017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필리핀은 17.5%, 홍콩은 9.8%,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5.3%를 기록했다.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지로 인해 악화됐던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의 '디스커버 서울패스' 판매량은 전체 국가 대비 비중과 순위는 크게 감소했다. 중국의 판매량은 2017년 9%로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0.24%로 12위로 떨어졌다.

시는 '디스커버 서울패스'가 주로 '온라인'과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판매되는 만큼 사드 배지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 여파가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한한령 이후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판매가 거의 사라졌다. 자연스럽게 대만, 홍콩 등 기타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쪽으로 집중됐다"며 "올해부터 중국쪽은 온라인 여행사 판매를 추진하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중국 온라인 여행사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다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 쪽은 한번 경직되다 보니 온라인 쪽으로는 판매를 늘리기엔 조금 힘든 상황"이라며 "올해부터 다시 중국 여행사 쪽으로 MOU 체결해 판매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스

2016년 출시후 누적판매량 5만장 돌파 필리핀·대만 관광객 상승 견인...중추춤

용이 가능하다. 24시간권(3만9900원), 48시간권(5만5000원), 72시간권(7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6년 4850장, 2017년 1만5571장, 지난해 3만4082장이 판매됐다. 누적 판매량은 5만4503장으로 나타났다.

권종별로 살펴보면 24시간권은 2016년 4850장, 2017년 1만2570장, 지난해 3만4082장이 판매됐다. 2017년 도입된 '48시간권'은 3001장을 시작으로 지난해 1만1957장으로 판매량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5월 도입된 '72시간권'은 4683장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2017년 판매량 1위 국가였던 '필리핀'이 지난해 2위로 밀려나고 '대만'이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온라인 여행사 성장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홍콩의 'klook', '대만의 kkday' 등 아시아 기반의 온라인 여행사가 많은 투자 유치에 성공해 급성장하면서 영향력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의 경우 한국을 방문하는 인바운드(해외 현지 판매) 자유 여행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대만과 한국 간 여행 시장의 성장으로 '디스커버 서울패스'에 대한 관심이



"임환우 위해서 헌혈 실천해요" 라이나생명 직원들이 '사랑있는 헌혈 캠페인'의 일환으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라이나생명 본사 앞에서 헌혈을 실천하고 있다. 라이나생명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오늘부터 30일까지 대국민 건강캠페인의 일환으로 임환우들을 위한 헌혈캠페인을 진행하며 모어진 헌혈증과 모금액 전액은 '한국 혈액암 협회'에 기증된다.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세종문화회관으로 오세요"

다양한 공연·전시 프로그램 마련...할인 혜택도

세종문화회관이 설 연휴 기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영국 웨스트엔드 오리지널 내한 뮤지컬 '플레이스'와 서울시극단의 셰익스피어 시리즈 가족음악극 '십이야', '더 헬멧-Rooms Vol.1' 등이 공연된다.

영화 '플레이스'의 원작인 뮤지컬 '플레이스'는 낮에 용접공으로 밤에는 댄서로 일하는 18세 소녀 일렉스 오웬스가 사막한 도시의 비정한 현실 속에서도 전문 댄서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는 성장

스토리다. 명절 연휴기간인 다음달 3일, 5일, 6일(2시) 공연에 한해 전석 3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삼정각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우리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과 한식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진찬'을 선보인다. 전통 풍물 공연을 현대적인 형식으로 재구성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공연 관람 후에는 설맞이 특선 한식 메뉴인 '연일밥 정찬'을 제공한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는 '취미의 발견-이웃집 예술가展'도 관람할 수 있다. 작업, 연령대, 삶의 방식 등 22명의 작가들이 모여 '취미'를 키워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한복을 착용하고 입장하는 관람객은 5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지하 2층에 위치한 '세종·충무 공이이야기'에서는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의 업적을 직접 체험하며 관람할 수 있는 전시를 볼 수 있다. '나만의 해시계 만들기' '어리닝 선 비복 체험' '나만의 한글배지 만들기' '한글로 우리가족 동화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뉴스스

서울 건설노동자, 가상현실로 안전사고체험



서울시는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실처럼 체험하는 가상현실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창조해 마치 실제 주변 상황이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9월 가상현실 안전교육을 도입해 10월부터 별내선(1공구) 건설공사 현장노동자 48명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했

다. 안전교육을 받은 노동자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매우만족 83%(40명), 보통 17%(8명), 미흡 0%(0명)였다.

교육을 받은 안모씨는 "안전사고 체험만으로도 위험을 느끼고 추락사고 체험은 가슴까지 떨린다"며 "가상현실이 현실처럼 느껴지고 현장감이 고스란히 전달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VR 안전교육을 확대해 위험한 상황을 미리 체험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백화점·면세점·호텔·인터넷쇼핑 장사 잘됐다

서울 시내 백화점·면세점·호텔·인터넷쇼핑업종이 장사가 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이 29일 발표한 '2018년 12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에 따르면 2018년 12월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3% 상승했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독립슈퍼 잡화점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백화점과 편의점, 면세점의 소

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무점포 소매(35.2%)는 인터넷 쇼핑 주도로 높은 오름폭을 지속했다.

숙박업은 호텔업이 소비 증가를 주도했다. 반면 주점·커피전문점은 약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서북권을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소비 증가가 나타났다.

도심권 소비경기지수는 권역 중 가장 큰 폭 증가(15.1% 증가)를 보였다. 지난해 전지상거래 쇼핑물 등 무점포소매업의 소비증가폭이 당분

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매업도 종합소매, 음식료품·담배, 문화·오락·여가, 무점포소매업의 소비호황이 지속되며 큰 오름폭을 유지했다.

반면 서북권 소비경기지수는 전 권역 중 유일하게 감소(4.8% 감소)를 했다. 소매업은 내림세(소매업 8.3% 감소)를 지속했다. 숙박·음식점업도 음식점과 주점·커피전문점 업의 부진이 심화되며 내림세로 전환(숙박·음식점업 1.0% 감소)됐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